

순천만 생태 가치 도심까지 잇는다

동천하구 습지복원 본격 추진 60억원 투입 농경지 추가 매입 고품격 생태관광 기반 구축



순천 동천하구 전경. (순천시 제공)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도심까지 잇는 '동천하구 습지 복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순천만습지와 도심 사이에 있는 동천하구는 생물 다양성과 연안습지로서 원형이 잘 보존돼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지역이다. 시에 따르면 순천만의 원시적인 아름다움과 생태환경의 가치를 도심까지 확장함으로써 고품격 생태관광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천하구 습지 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동천하구 지역은 일부 농경지의 영농 활동 등으로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훼손 우려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국비 120억원을 확보해 18ha의 동천하구 농경지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도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나머지 농경지를 추가로 매입해 본격적인 습지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금년 상반기 중 매입한 하천구 내 농경지를 습지로 복원하기 위해 제방을 철거해 해수를 유통시키는 역간척 사업을 추진한다. 2단계로는 습지보호지역을 인공시설 등이 없는 수변공원, 우수지로 복원하는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순천시의 생태계 복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여를 하고 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된 한 해에만 생태관광객 981만 명이 순천을 방문했으며, 지난해에도 425만 명이 순천을 찾았다. 특히 지난해 겨울부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의 경우 총 개체 수 1만6000~1만8000여 마리 중 약 50%에 해당하는 7600여 마리가 순천만을 찾아 월동하면서 탐조관광의 성지로 각광받아 비성수기인 겨울철에 순천만을 찾는 국내·외의 탐조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자리서지 전문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국내여행의 1인당 평균 총 경비는 22만 4000원이며, 1일당 경비는 약 7만 4000원으로 조사된 것으로 볼 때, 지난해에만 순천을 1일 방문한 관광객 기준으로 보더라도 3145억원을 지역에서 소비한 것으로 추산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동천하구 습지 복원 사업을 통해 순천만의 생태환경의 가치를 도심까지 연결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동천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2015년 이후 27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순천만 습지와 동천하구의 습지보호지역 내 35ha의 토지를 매입하여 생태환경 복원과 보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지난해 2배...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보성군 위생 수칙 준수 예방 당부

보성군이 최근 전국적으로 장관감염증(노로바이러스·로타바이러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1월 4주차 469명으로 집계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도 1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명)보다 2배 이상(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관감염을 일으키는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주로 오염된 물(지하수)이나 음식물(어패류)을 통해 감염된다. 반면,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에서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이에 따라 개인위생 관리를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유아와 어린이집 등에서 철저한 환경 관리와 예방 활동이 필수적이다. 감염 확산을 위해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24~48시간 동안 등원·등교 및 출근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물 50)한 용액을 천에 묻혀 닦아내는 방식으로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해 영아에게 무료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집중이 가능한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시, 난임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소득·연령 제한 등 폐지

여수시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과 '영구적 불임 예방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55세 이하 남성 또는 49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정관복원은 최대 50만원, 난관복원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구적 불임예방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은 생식 건강 손상 등 향후 임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과 초기 보관(1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부형·전남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 연령제한 등을 폐지했으며, '난자 냉동 시술비'는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부부당 2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659-4265, 4287)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결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늦은 결혼으로 인한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신규 사업으로 난임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체계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경제자청 4박 5일 日 도쿄·오사카 투자유치 활동

'스마트에너지위크' 참가 투자 협의



광양경제자청은 이번 출장에서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소재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며 광양만의 투자 최적지로서의 여건과 다양한 지원책을 홍보했다. 특히 세풍, 황금 등 산업단지의 인프라, 이차전지 집적화 단지 조성 현황 및 세제 혜택 등을 소개해 일본 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자청)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광양경제자청 투자유치단은 먼저 도쿄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된 '2025 스마트에너지위크(Smart Energy Week 2025)'에 참가해 일본 투자유치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및 에너지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유망기업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 등 현지 기업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며 투자유치 기회를 모색했다. <사진>

또 이차전지 소재 생산 기업인 센트럴글래스 본사를 방문해 광양만 내 이차전지 집적화 단지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추가 투자확대를 건의하는 등 한일 협력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오사카를 방문한 투자유치단은 KOTRA 오사카 무역관(관장 김경미)과 오사카엑스포 연계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일본 대표 농기계 및 중장비 제조업체의 물류센터를 방문해 물류거점 구축 가능성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광양경제자청은 이번 출장에서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소재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며 광양만의 투자 최적지로서의 여건과 다양한 지원책을 홍보했다. 특히 세풍, 황금 등 산업단지의 인프라, 이차전지 집적화 단지 조성 현황 및 세제 혜택 등을 소개해 일본 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구중근 광양경제자청장은 “이번 투자유치활동은 일본 최대 규모 전시회인 2025 스마트에너지위크를 통해 전세계 에너지분야 유망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광양만이 이차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투자의향을 가진 해외기업과 협의를 지속해 광양만권에 우수한 외국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문화활동 지원 '문화갑계' 참여자 모집

180명, 다음달 9일까지 신청

고흥군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취향과 지역 이슈에 문화적 접근을 통한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활동진흥전소 '문화갑계' 참여자를 모집한다. 고흥군 문화도시센터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동강면, 봉래면 등 5개 읍·면 소재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문화갑계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소개했다. 올해 문화갑계는 공예·미술·공예 분야의 9개 취향 갑계와 환경·마을·돌봄을 주제로 한 9개의 실험 갑계가 운영될 예정이며 각 갑계는 최소 8명에서 최대 10명이 참여할 수 있고 소정의 활동비가 지

원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고흥군 거주·거소자 180명이다. 신청 방법은 고흥군 문화도시센터 블로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된 문화갑계는 해마다 200명 이상의 군민이 참여하는 고흥군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올해는 다양한 분야와 생각이 결합하는 형태로 색다른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